

과학기술과 미래

민경찬 교수(연세대, 과실연 명예대표)

제26회 포럼의 발표자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덕클럽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과실연은 공동포럼도 가진 바 있어, 오늘의 모임도 더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갈 것이라 기대됩니다. 특히 과실연은 그동안 대덕클럽의 신성철 회장님, 장인순 회장님, 최영명 회장님들과 함께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공감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온난화 환경위기, 빈부의 차 같은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며 미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회시스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도연 위원장께서는 시대적 변화를 위기의식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생존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미래 사회는 바로 이러한 '절박한', '절실한' 생존적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종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자본주의 위기 못 넘으면 민주주의 위기 온다.', 2010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기적은 이제 끝났다. 어렵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만이 살길이다." 라는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넘지 못하고 정체된 우리 경제 상황 가운데, 청년 일자리, 양극화(소득, 세대, 이념, 지역, 인종 등), 표를 쫓는 복지 논란, 학교 폭력 등 우리 내부의 가치 체계, 사고 문화의 흔들림은 더욱 혼란에 빠져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는, 10년, 20년, 100년 후는 누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100년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굶주림과 억압의 긴 고통의 통로를 지나 오늘에 있는데, 다음 세대는 더 잘 살 수 있을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G2 국가로의 급격한 부상, 엄청난 연구개발 투자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기술자들이 1962년 서울의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잘 살던 선진국이었는데, 몇 십 년 사이에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음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도,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식량, 물, 질병, 재난 등의 글로벌 이슈에 국가 간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경쟁과 공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가 '더불어 (togetherness)' 잘 살아가도록 도우는 일이며, 과학기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과학기술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 철학과 비전을 명확히 세울 때입니다. 즉, “목적이 있는 과학기술”이 외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은 기본적으로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의 해결에 기여하기’에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국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 사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연구비는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무엇을 돌려드려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목적, 의미,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일입니다. 이는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보람을 공유하게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는 비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합니다. 종종 나타나는 연구비의 활용의 적절성 여부, 연구 성과의 질 이슈 등에 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이 국민의 인식에 달려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려면 최고, 최초, 유일의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소득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도 보건, 의료, 환경, 에너지 등 공공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창업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취업, 창업의 과제는 해외 시장으로도 확대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한류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는 기존 연구자보다도 “젊은이”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 마음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벨상, 필즈상도 주로 젊었을 때 연구결과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공계 인재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문과, 이과 구분 없는 교육, 호기심을 따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인하는 사회,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갈수록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은 경제를 위한 도구의 단계를 넘어 국정 중심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 문화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정, 의정활동에 전문성과 새로운 사고 문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과연(대한민국 과학기술 대연합)에서는 올해 총선에 이공계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대선에서는 국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가 더 적극적으로 국정, 의정에 참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메카인 대덕의 지도자 여러분들의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